

다산포럼



장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호국의 달 6월, 빼려 풍선과 오물 풍선이 오가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를 바라볼 수 있는 칠성전망대를 찾았다. 그곳에 서면 멀리 교암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한 줄기 강이 잘 보인다. 바로 그것이 금성천이다. 전쟁의 참화를 잊은 듯 평화롭게 흐르는 모습이 마치 이동원이 부른 노래 '향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 이 지역은 1953년 7월, 휴전을 불과 2주일 앞두고 한국전쟁 최후의 사투가 벌어진 현장이었다. 짧은 병사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땅, 그곳을 좀더 멀리 보려면 새롭게 만들어진 케이블카를 타고 1178m 고지 백암산에 올라야 한다. 그곳에서는 서북쪽의 산줄기들 사이로 제법 큰 농촌 도시, 금성을 내려다볼 수 있다. 북한은 1954년부터 이곳을 김화읍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유엔군과 국군은 1951년 봄 중국 지원군의 5차 대공세를 물리치고 다시 38선 이북의 중동부지역을 수복했다. 전선이 고착되면서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비무장지대 설치에 쉽게 합의했지만 포로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크게 달라서 회담이 진척되지 않았다.

금성천을 바라보며

유엔군은 북측을 압박하기 위해 추계 대공세를 펼쳤는데, 특히 미 제9군단은 중동부 전선이 시작되는 금성남쪽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봉화산과 교암산을 점령하고 금성을 코앞에 둔 후천리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김화에서 백암산으로 이어지는 전선에서 북쪽으로 특별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곳을 '금성돌출부'라고 불렀다. 중국군은 1952년 6월 금성 동쪽 고지목리의 고지들을 공격했지만, 아군은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1953년 5월 휴전협상이 거의 타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북측은 승전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 지원군은 금성지구에서 공세를 취하여 약간의 승리를 얻었던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휴전반대 북진통일 캠페인을 강화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금기가 6월 18일부터 약 2만 60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의 석방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은 당황했고, 중국은 분노했다. 중국 지원군은 7월 13일 금성지구의 국군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서쪽을 방어하던 수도사단의 부연대장 김익순 대령이 포로가 되었고, 기갑연대장 육근수 대령이 전사하였으며, 국군은 원래의 대치선에서 10km 이상 후퇴했다. 다행히 국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백암산과 흑운토령을 탈환했지만 중국군의 7.13 대공세에 의해 빼앗긴 지역을 모두 탈환하지는 못했다. 결국 반공포로석방은 한미방위조약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국군 1만 4000여 명의 추가희생과 금성돌출부의 상실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오늘날 칠성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비무장지대

의 북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농장이 있는데, 그곳은 옛날에 큰골, 능동, 죽동이라는 마을이었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금성천 주변 평지는 세운리, 세현리라는 마을이 있던 곳이다. 중국은 2020년, 이 금성 전투를 소재로 하여 금강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 영화의 상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이런 연유로 칠성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분단 경관은 우리에게 특별한 회한을 제공한다. 지난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러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제4조에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과 연관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상기시킨다. 북한은 이 협정 체결 직후인 7월 11일 중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 냉전과 중소분쟁에서의 사회주의권의 복잡한 동맹과 견제 전략을 담은 것이다. 조소 협정은 냉전의 해체에 따라 1996년 9월 10일 폐기되었다. 거의 30년만에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북러 협정이 1961년의 조약과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물론이고,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꿈꾸는 2040



김선남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주 미분양 주택은 860세대였는데 4월 통계에서는 1721세대까지 증가해 4개월만에 약 2배 가량 늘었다. 최근 지역 건설사인 한국건설에 이에 증진 건설사인 남양건설도 광주지방 법원에 법원회생 신청을 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잇따른 건설사의 부도 원인은 공사 자재비 인상과 공기가 연장되는 등 건설업계의 약세가 계속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분양가와 지난해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급증한 신규분양 공급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많이 올라 청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태이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아파트 청약에 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고민도 깊다. 현재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2년 전 분양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내몰었다. 수분양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금리 정책에 따라 연 5%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대부분 국내 아파트 분양은 후분양이 아닌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무너지는 지역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의 고민

돈을 지급해야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기회비용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나머지 공사 진행과 지연되는 이자납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다행히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선납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아파트 분양이 종료된 후 사업자의 부도 및 사업포기 등으로 나머지 분양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주택분양보증'이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주택법 제15조에는 30세대 이상 분양을 하는 경우 건설사는 반드시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되어야 분양공고를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은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는데, 분양계약 당시 반드시 HUG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된 경우 주택사업자가 사업포기로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감리공정률이 80% 이상이면 HUG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해 준공을 책임지거나 또는 수분양자가 미리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준다. 만일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기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증보험사에서 1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HUG에서는 부도시점에서 분양계획서상의 납부액까지만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HUG에서 새로운 계약을 지정하기 전까

지 중도금 납부는 중단해야하며 그때까지 낸 중도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사 부도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났더라도 지체배상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없으나 HUG가 선정한 건설사가 새로 통보한 입주예정일을 지난 경우에는 초과입수에 따라 주택분양계약서에 정한 지체배상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발코니 확정비용 등은 HUG가 정하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수분양자가 아파트 분양 자체를 거부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이다. 대법원은 "HUG가 일반적으로 선택된 행사를 게을리 채 방지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피고가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에도 수분양자로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도금을 돌려받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지 선택할 권리는 수분양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요자들의 소득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으로 감당할만한 수준까지 충분히 낮아지면 수요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부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 동네 매력 찾기 '어반 스케치'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에서 주최하는 '동구를 스케치하다' 전시의 작가 모집 공지를 보고 참 고민이 많았다. 사실 미술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기에, 아직 결혼과 단체인 내가 작가로 전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기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큰 광주 동구의 곳곳을 스케치한다는 전시 기획의도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지난 1월 광주시립미술관 어반스케치관에서 처음 그림그리기를 시작한 뒤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번 광주 곳곳에서 하는 정모와 매주 회원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선정해 그리는 주간미션에 참여하고 있다. 3월 첫 정모 때 느꼈던 설레임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회원들이 각자의 도구를 펼치고 집중해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서 열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잘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전답사와 연습까지 해주었지만 허둥지둥 펜스케치만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다함께 모여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땀이 같이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몽클레지까지 했다. 광주어반 정모를 통해 무등산 자락의 선춘마을, 산수동 문화마을, 동명동 카페거리 등 동구의 곳곳을 탐방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회의 워크숍과 어반스케치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다. 5·18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전남도청 부지에 지어진 ACC 건물의 의미와 공공미술, 시설들을 도슨트 투어를 통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5월 정모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모여 오일길을 해설사님의 설명

을 들으며 함께 걷고 스케치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혼자서도 동구의 곳곳을 열심히 다녔다. 아직 서둘러 느끼기에 한옥과 양옥이 합쳐진 독특한 인문학당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3번을 다녀가기도 했고,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서 장을 보며 정겨운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 광주에 대한 나만의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낱장의 종이 아닌 양장 제본된 작은 스케치북에 그려나가면서 시간과 이야기들이 축적된 한 권의 기록지를 만들고자 한다.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활동과 전시 참여로 어반스케치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며 모임을 이끌어가는 운영진들, 수업시간의 인연으로 생긴 짝꿍 선생님, 단독방에 자신의 연습 방법을 올려주고 좋은 스케치북이나 경치 좋은 장소를 알려주시는 회원, 매일 어반스케치를 하며 그림을 공유해 주시는 열정 넘치는 회원들을 보면서 어반스케치는 함께 할 때의 사너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제4회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의 단체전 '동구를 스케치하다'에 참여했고,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이 함께 한 'ACC에 반한스케치' (7월7일까지) 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나는 어반스케치를 통해 지금 여기서 함께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누면서, 광주가 낯선 도시에서 우리 동네로 바뀌어 가는 즐거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고



유지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작가

골목길을 지나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접이자의자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주변 풍경을 담아내는 것을 어반 스케치라고 한다. 어반스케치는 2007년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가브리엘 캄파리니오가 사진을 보고 그리는 대신 방문하는 장소를 현장에서 바로 보고 그리도록 장려하는 온라인 스토리텔링 포럼을 만들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수원, 경주, 부산 등 많은 도시에서 어반스케처스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어반스케처스광주가 결성돼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2024년 2월부터 일원이 되어 함께 하고 있다. 나는 2023년부터 광주에 거주하게 된 새내기 광주시민이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광주와 전남지역의 명소와 맛집을 탐방하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았다. 여행지에서 명소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광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社說

대선 전초전 여야 전당대회 국민참여 확대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출사표, 일종의 본격화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대선 주자들이 거의 총출동하기 때문에 미리 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각 후보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다음 대선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양당의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어제 당 대표직 사퇴로 연일 도전을 명확히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는 다자간 경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나경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 후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접촉

파멸 부르는 교세폭력, 처벌 범위 확대해야

최근 남여가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세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교세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갈취,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데이터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부터 수사기관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교세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인터넷방송 BJ이자 전 프로그래머 A씨의 사례는 교세폭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광주여성들의 전화'에서 기자가 만난 피해자 이 모씨는 팬으로 알게 돼 동거까지 한 남자 친구 A씨에게 3년여 동안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A씨와의 관계를 끊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교세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無等鼓

"재미있고 신나요!" "축각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찾은 신안군 자은도 둔장 어촌체험마을. 간조 때가 되자 스르르 바닷물이 물러나며 광활한 갯벌이 드러난다. 물결무늬가 새겨진 갯벌에서 갈퀴를 들고 조개를 캐는 동식물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쓱쓱, 손을 움직일 때마다 갈퀴 끝에 굵직한 백합조개가 걸려 나온다. 조개껍질 무늬 또한 알록달록 다채로워 눈길을 사로잡는다. 백합조개를 캐려면 우선 갯벌에 드러난 숨구멍을 찾아야 한다. '생활인구' (월 1회, 하루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포를 보고 보물찾기 하듯 갈퀴질을 하면 백합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간혹 칠게가 나오거나 빈 집질 뿐인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알찬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백합조개 종패(種貝)를 뿌린다. 삼강강과 후릿그물, 독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시인들이 농촌과 산촌, 어촌 등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촌(村)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이다. 러스틱은 '시골'의, '소박한'이라는 의미다. 인파로 북적거리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나만의' 여행과 휴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강진 '푸소'(FUSO)와 농협 '팜스테이'(Farm Stay) 등 농촌과 산촌, 어촌 휴양마을마다 제각각 개성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숙박을 하면서 시골의 인심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촌캉스'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생활인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의 증가는 쇠락해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촌캉스'를 계획한다면 전남도 '농촌체험관광'(www.jnfarmtour.com)과 해양수산부 '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 적합한 휴가 대상지를 찾아볼 수 있다. 불별타워와 장빛비가 교차하는 요즘, 직장인들은 여름휴가를 떠날 시기와 장소를 고민한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느림의 미학'을 여유롭게 만끽하고 도·농간 상생할 수 있는 '촌캉스'를 떠나면 어떨까. /송기동 여행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